

장동언 기상청 차장 서천군 일대 대설 지역 현장방문

- 철저한 위험기상 감시로 재해 피해 방지에 노력

장동언 기상청 차장은 12월 26일 (화) 작년과 올해 많은 눈이 내린 충청남도 서천군 일대의 재해 현장을 방문했다.

충남 서천군은 작년에도 기록적인 대설이 내려 농가시설 등에 피해를 끼친 바 있다. 당시 서천AWS 최심적설은 37.1cm였다.

장동언 기상청 차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12월 22일 최심적설 39 cm를 기록(춘장대AWS 기준)한 서천군 일대의 대설 현장을 둘러보며, “앞으로 위험기상 상황을 철저히 감시하고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충남 지역에 대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밝혔다.

붙임 대설 재해 현장 방문 사진

담당 부서	대전지방기상청 예보과	책임자	과 장	장재동 (042-363-3510)
		담당자	주무관	이나정 (042-363-3528)



| 서천군 현장 방문(오른쪽에서 두번째 장동언 기상청차장) |



| 서천군 현장 방문(오른쪽에서 두번째 장동언 기상청차장) ||